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Parenting Stress and Social Support of Infant's Mothers

전남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강사 劉又榮

인천 보육교사교육원

강사 崔진아

전남대학교 가정대학 가정관리학과

교수 李 淑

Dept of Home Management Chonnam National University

Lectuer: Wooyoung, Yu

Inchon Nursery School Teacher Educating Center

Lectuer: Jina, Choi

Dept of Home Management Chonnam National University

Prof.: Sook Lee

〈목 차〉

I. 문제의 제기

II. 문헌연구

III. 연구방법

IV. 결과 및 해석

V. 논의 및 결론

참고 문헌

〈Abstract〉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of maternal parenting stress and social support according to infant's age, and to examine the effect of social support and infant's age on parenting stress. The subjects were 145 mothers who have 2-5 olds children. The questionnaire was used as a methodological instrument and the statistics used for data analysis were frequency, percentile, mean, t-test, Pearson's r-coefficient, and multiple regression.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mothers with 2-3 olds child perceived more child's demandingness and mothers with 4-5 olds child perceived more mother's competence. Mothers with 2-3 olds child perceived more social support than mothers with 4-5 olds child. Husband's support and infant's age were found to be important variables in predicting parenting stress.

I. 문제의 제기

현대 사회에서 가족의 기능은 급격한 사회적 변화를 겪으면서 과거보다 많이 축소되고 있으나 자녀양육 및 사회화 기능에서의 중요성은 오히려 더 강조되고 있는 경향이다. 일반적으로 자녀의 양육은 부모에게 심리적 사회적 안정감을 주고 자신의 삶을 반성할 기회를 갖게 하며,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흥미와 관심을 갖게 한다는 점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자녀양육으로 인한 심리적, 경제적 부담과 가사노동의 증가로 인한 신체적 피로감 등은 어머니로 하여금 개인생활을 가질 만한 여유를 주지 않고 정서감 상실의 위기를 초래하기도 한다(Webster-Stratton, 1988).

성인의 다른 역할들에 비해 부모의 역할은 역할 수행을 위한 준비가 거의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부여받게 되는 것이므로, 부모의 역할 전환은 매우 갑작스럽게 오기 쉽고, 부모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특히 핵가족화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에서 주위 가족원의 별다른 도움없이 혼자서 자녀양육에서의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어머니의 경우는 더욱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할 수 있다.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어머니가 느끼는 스트레스는 어머니 자신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양육행동과 관련되어 자녀 적응의 중요한 결정요소가 되고(Abidin, 1990; Crnic, Greenberg, Rogazin, Robinson & Basham, 1983), 나아가 가족의 복지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이재연·최영희, 1990) 매우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할 문제이다. 즉 부모-자녀체계의 중심인물인 어머니가 과도한 양육스트레스를 받으면 부모로서의 역량감에 회의를 느끼게 되고 이에 따라 자녀에게 권위를 행사할 수 없을 만큼 위축된 행동을 보이기 때문에, 결국 자녀의 정서적, 행동상의 문제를 낳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부모-자녀체계의 긴장과 부담은 가족 내 다른 하위체계로 전이되고, 가족 전체에까지 심각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들은 부모의 취약

성을 보완하고 부모-자녀간 적응을 강화시키는데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Cobb, 1976; Schilling, Gilchrist & Schinke, 1984; Shapiro, 1989). 자녀양육에서의 사회적 지지란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자녀양육에 대한 새로운 경험과 지지를 얻는 것이다. Bronfenbrenner(1977)와 Cochran(1977)은 인간발달생태학적 접근법을 제시하면서 사회적 지지체계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사회적 지지체계가 부모역할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였다. 이들은 한 개인이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다는 것은 그 개인의 자존감을 높여 줄 뿐만 아니라 부모역할 인식과 부모-자녀와의 상호작용 형식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즉, 부모가 사회적 지지체계에 의해서 자녀와의 의미있고 지지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능력, 다시말해 부모의 일관되고 민주적인 자녀양육 형태를 갖게되며, 자신의 부모역할에 대한 인식을 부분적으로 결정받게 된다는 것이다. 즉 Bronfenbrenner(1994)는 현대사회에서는 효과적 자녀양육을 위해 부모, 친척, 이웃, 친구, 지역사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사회 전체의 여러기관이 서로 영향을 주고 받고 있으며, 따라서 한 개인의 사회적 지지체계는 그의 개인적 삶의 만족 뿐 아니라 부모-자녀관계를 포함한 가족체계의 만족이라는 확대된 개념으로 새롭게 인식되어야 함을 주장하였다.

국내에서는 최근 들어 부모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사회적 지지가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킨다는 결과들을 보고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연구들은 장애아 출생과 그로인한 양육스트레스가 장애아 가정에 특수하고도 지속적인 어려움을 가져오고 장애아 부모가 정상아 부모보다 더 많은 양육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경향이 있다(Bradshard & Lawton, 1978)는 전제하에 장애아 어머니를 대상으로 연구한 것(김은숙, 1989; 김희순, 1988)이 대부분이고 정상아 가족을 연구한 경우는 많지 않으며 그런 경우에도 아동기에 속해 있는 자녀를 둔 가정이 연구대상인 경우(김희순, 1988; 이숙현, 1990; 한세영, 1996; 고성혜, 1994)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정상아 가정의 경우도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아동발달에 직접·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자녀의 발달 단계에 따라 어머니에게 요구되는 부모역할이 다르게 부과되기 때문에(이재연·최영희, 1992), 아동기와 별도로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도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같은 유아기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보호'의 역할이 요구되는 유아기 초기의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와 '양육'의 역할이 주로 요구되는 유아기 후기의 4-5세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느끼는 양육스트레스나 사회적 지지는 그 내용이나 정도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유아기 자녀의 연령을 초기(2-3세)와 후기(4-5세)의 두 집단으로 분류하여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에서의 차이를 살펴보고, 자녀의 연령과 사회적 지지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자녀의 연령에 따라 2-3세와 4-5세의 두 집단으로 분류하여 어머니가 지각하는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에서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살펴보고, 자녀의 연령과 사회적 지지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효율적인 부모역할의 수행을 위한 부모교육 및 사회적 지지 프로그램 수립에 있어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고 본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자녀의 연령(2-3세, 4-5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지각은 자녀의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3.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자녀의 연령 및 사회적 지지의 영향은 어떠한가?

II. 문헌연구

1. 양육스트레스

먼저 Abidin(1990)의 PSI(Parenting Stress Index)연구를 들 수 있다. Abidin은 양육스트레스의 개념을 자녀의 행동특성에 대한 부모의 지각, 부모로서 자신에 대해 스스로 느끼는 지각과 가족원의 사망이나 이혼과 같은 생활사건에서 오는 스트레스의 3영역으로 구성하였다. 부모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아동의 행동특성에는 적응성, 요구성, 감정, 활동성, 수용성, 부모강화가 포함되고 이 중 4가지, 즉 적응성, 요구성, 감정, 활동성은 아동의 기질과 관련된 특성으로 유아기의 기질이 아동기나 성인기의 행동특성을 설명하는 것으로 뚜렷이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것은 측정상의 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장기예언력을 가장 많이 갖는다고 보았다. 부모특성은 자녀에게 효과적으로 반응하는 부모능력과 관련된 것으로서 우울, 유능성, 애착, 배우자 관계, 고립, 건강, 억압이 포함된다고 하였다. 이 중 부모의 인성과 병리학적으로 요인으로는 우울, 유능성, 애착이 해당되고 부모스트레스 단계에 영향을 주는 상황적 변인으로는 배우자와의 관계, 고립, 건강, 억압이 해당된다. 이와 같은 Abidin(1990)의 연구는 아동발달에 있어 부모와 환경의 영향을 강조하고 아동 자신의 역할이 소홀히 취급되어 온 과거와는 달리 아동 자신의 능동적인 작용과 부모-아동간 양방적인 영향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

한편, 가족원의 사망이나 이혼, 별거와 같은 주요 생활사건이 부모, 아동, 가족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기는 하지만(Sarason, Johnson & Siegel, 1978), 이런 사건은 대부분의 가족에서 발생하는 빈도가 낮기 때문에 Crnic과 Greenberg(1990), Crnic과 Booth(1991)는 주요생활사건보다는 일상적 스트레스사건(Daily hassles)으로 인해 누적된 스트레스가 심리적 안녕을 더 잘 예측해 준다는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일상적 스트레스사건이란 일상생활에서 사소하게 일어나는 일이나 사건 즉, 많은 책임을 안고 산다든지, 배우자와 언쟁을 하는 등 사람을 짜증나고 고민하게

할 수 있는 사소한 일들로 인해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를 의미하고, 일상적 양육스트레스는 일상생활에서 반복적으로 계속되는 자녀양육과 관련된 일이나 만성적인 경험, 자녀의 행동이나 요구로 인하여 경험하게 되는 스트레스를 의미한다. Crnic 등(1990)은 부모-자녀관계에서는 극적이고 사건적인 경험보다는 일상적 양육스트레스가 더 많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스트레스가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국내의 경우 가족스트레스연구회(1991)에서는 양육스트레스를 받는 이유를 세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첫째, 자녀의 발달에 따른 특수한 자녀행동이나 자녀문제의 발생 둘째, 어머니 자신의 역할에 대해 느끼고 있는 감정이나 생각 셋째, 어머니 자신의 개인적 질병이나 정서적 문제 또는 남편 등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의 지원부족, 특별한 생활사건의 발생 등이다. 고성혜(1994)는 Belsky의 상황적 모델을 적용하여 양육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속성에 관한 요인에는 자녀관련변수와 어머니관련변수를 포함시키고, 상황적 요인에는 가족환경변수를 포함시킨 결과, 양육스트레스 요인구조로 자녀의 장애 및 올바른 양육에 대한 불안감, 자녀양육으로 인한 부담감 및 우울성향, 부모의 죄책감 및 역량감, 자녀양육에 따르는 신체적 피로도 및 구속감, 가족간 불화, 자녀로부터 받는 심리적 상처의 6가지 요인을 보고하였다.

한편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Crnic과 Booth(1991)는 부모가 일상적 스트레스사건에서 느끼는 스트레스 정도는 영아가 9-12개월 일 때 보다는 30-36개월일 때 부모들이 일상적 양육스트레스를 더 강하게 지각한다고 하였고, Mash와 Charlotte(1983)은 유아의 산만성이 높을 때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지각하게 된다고 하였다. 박해미(1994)는 유치원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어머니가 아버지보다 더 양육스트레스를 느끼고 전체 양육스트레스에 아동특성이 더 영향을 미치며 특히 수용성이 스트레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라고 하였다. 이인숙(1994)은 자녀수가 적을수록 주부만족도가 높을 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낮아진다고 하였다.

2.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란 일반적으로 자신이 아닌 타인에게서 제공되어지는 모든 물질적, 심리적, 정보적인 도움을 의미하는 것으로, 넓게는 우리가 사회생활을 해나가면서 나 이외의 다른 사람들과 주고 받게 되는 모든 형태의 상호작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사회적 지지에 대한 초기의 관심은 사회적 지지와 개인의 신체 심리적 건강과의 관계에서 시작되었으며, 최근에는 스트레스에 대한 효과적인 완충제로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Cobb, 1985; Crnic 등, 1983).

사회적 지지는 구조적인 측면과 기능적인 측면으로 분리되어 측정될 수 있는데 구조적 측면은 개인이 맺고 있는 대인관계 구조의 객관적인 측면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는 한 개인이 얼마나 많은 대인관계를 맺고 있으며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객관적으로 측정함으로써 얻어지는 사회적 지지의 양적인 측면을 의미한다. 사회적 지지의 기능적 측면은 학자들마다 상이하게 분류하고 있다. House(1981)는 정서적·정보적·도구적 지지와 자신감을 심어주거나 타인에게 비취진 자신을 보게 함으로써 자신을 평가하게 하는 평가적 지지로 구분하였다. 성영혜(1993)은 정보·정서·물질·평가적 지지로 구성하였고 최진아(1996)는 정보·물질·정서적 지지로 구분하였다.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로 이은혜(1997)는 4-5세 유아를 둔 어머니의 경우 친정어머니, 남편, 시어머니, 친정 여형제 등 주로 가까운 친척관계위주로 지지관계망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하였다. 성영혜(1993)도 지지구조면에서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비하여 친정어머니, 형제자매, 친구, 이웃들로부터 더 많은 지지와 만족을 얻고 있었다고 하였다.

3.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

모든 어머니는 자녀양육 과정에서 어느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지만, 남편, 가족, 친구, 이웃, 기타

개개인에 의해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에 따라 양육스트레스의 지각정도가 완화될 수 있다(Cmic 등, 1983).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는 만성질환이나 장애아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김은숙, 1989; 김희순, 1990; Schillin 등, 1983; Turner, Frankel & Levin, 1983)이 대부분이다. 이들 연구에서는 아동의 문제에 대한 부모의 지각이 아동의 실제 능력에 대한 지각보다는 부모의 개인적인 스트레스에 기인한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하고 있다. 보통 발달적으로 지체된 아동의 부모들이 정상아 부모에 비해 더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스트레스를 극복하는데 사회적 지지가 효과적이라고 보고되고 있다.

정상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연구한 경우를 보면 먼저, 구조적 지지인 지지원의 종류에 따라 그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전춘애, 박성연, 1996). 예를 들면 배우자(남편)의 지지와 배우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지지의 영향력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 취업모의 경우 남편으로부터의 지지가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이희정·이숙현, 1995; Cmic 등, 1983). 또 Belsky와 Kelly(1994)의 연구에서도 사회적 지지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영역 중 남편으로부터 정서적 지지를 많이 받는 경우 생활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능적 지지에 관한 연구로 편모들에게 제공되어지는 정서적 지지는 모-자녀관계의 질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편모가 받는 도구적 지지가 딸이 학교에서 사회적 관계를 맺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한다(Tietjen, 1985). 또 지지적이며 양육경험이 많은 주위 사람들의 격려로 자신감을 가진 어머니는 긍정적인 생활능력을 가지게 된다(Cochran, 1993)고 하였다. 송주미(1992)는 정보적, 물질적 지지가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켜준다고 하였고, 사춘기에 어머니가 된 경우를 조사한 Unger와 Wandersman(1985)도 정보적 지지모임이 어머니와 자녀의 적응에 좋은 영향을 미쳤다고 하였다.

한편 유아기 자녀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Cmic 등(1983)은 유아기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체계와 스트레스 정도가 초기 어머니-유아간 상호

작용과 부모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여 폭넓고 지속적인 지지를 받은 어머니들이 양육스트레스를 덜 지각하였다고 하였다. 반대로 사회적 지지체계가 약한 어머니들의 경우 양육스트레스를 느끼는 정도가 심했고 자녀의 요구에 적극적인 반응을 나타내지 못했다고 하였다. Melson, Ladd와 Hsu(1993)도 유아기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의 크기가 클수록, 지지원에 대한 만족이 클수록 양육과제를 덜 어렵다고 지각하였다고 하였고, 이은혜(1997)도 어머니가 정서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양육과제 전반에 대해 어려움을 덜 지각하였다고 하였다. 송주미(1992)는 4-5세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정보적, 물질적 지지와 지지구조인 크기와 빈도가 부모영역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켰다고 하였고, 김은숙(1989)은 5-6세 자녀를 둔 정상아 어머니의 경우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스트레스 완충효과를 보였다고 하고 남편, 친지, 이웃 등으로부터 사랑받거나 인정받음으로써 심리적 부적응이 해소되었다고 하였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인천광역시와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2-5세의 자녀를 둔 어머니 145명(만 2-3세 자녀의 어머니 35명과 만 4-5세 자녀의 어머니 110명)이었다

아버지의 평균연령은 34세, 어머니의 평균연령은 32세였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은 대졸(53.8%), 고졸(32%)순이었으며, 어머니의 교육수준은 고졸(50.5%), 대졸(40.8%)순이었다. 직업분포를 보면 아버지의 경우 사무직이 53.8%로 가장 많았고, 피고용 기능공이 24.8%, 자영상공업 12.1%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경우 비취업모가 46.6%, 취업모가 51.6%였으며 자녀의 연령은 만2세(9.3%), 만3세(15.5%), 만4세(28.6%), 만5세(26.2%)였고 성별은 남아 46.8%, 여아 46.1%로 고루 분포되었다.

2. 검사도구

(1) 양육스트레스

Abidin(1990)이 개발한 양육스트레스척도(Parenting Stress Index:PSI)와 Crnic(1991)의 일상적 양육스트레스척도(Daily Hassles Index) 등을 참고로 하여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검사'를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척도를 제작하기 위하여 먼저, 양육스트레스에 해당되는 요인들을 선행연구들을 참고로 하여 선정한 후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에게 적절한 문항들을 수집하였다. 그 후에 수집된 문항들이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들에게 적절한 문항인지 또한 각 문항이 해당 하위요인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전공교수 및 아동학 전공 대학원생들의 자문을 받아 문항의 내용을 검토, 수정하였고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 20명에게 보여 내용이 어렵거나 어휘가 생소하다고 판단된 문항과 우리의 문화와 맞지 않는다고 판단된 문항을 추가로 수정 또는 삭제하였다. 이렇게 하여 완성된 질문지를 가지고 200명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조사를 한 후 요인분석을 통하여 최종적인 문항선택을 하였다. 검사도구는 설문지로 되어있는데, 크게 아동영역(기질, 요구성, 수용성, 부모강화)과 부모영역(일상적 양육행동, 역할제한, 유능성)의 두영역으로 되어있으며 총 46문항을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까지 Likert식 5점척도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 계수(α)는 아동영역은 .85, 부모영역은 .85로 나타났으며 전체 신뢰도계수는 .90으로 나타났다.

(2)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 검사'는 Collins, Lobel, Punkel-Schetter와 Scrimshaw (1993)의 사회적 지지척도를 근거로 하여 제작하였다. 유아기 어머니의 자녀양육을 지원하는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 측면은 예비조사를 거쳐 주요한 사회적 지지원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남편, 시부모, 친정부모, 시댁식구, 친정식구의 5 범주로 분류하여 각 지지범주가 제공하는 사회적 지

지의 양을 측정하였다. 사회적 지지의 기능적 측면은 전춘애 등(1996)의 구분을 참고로 자녀양육과 관련된 정서적 지지, 자녀돌보기, 가사노동, 경제적·물질적 지지, 정보적 지지의 5영역으로 구분하였고 그에 따라 해당되는 문항들을 구성하여 각 지지제공자가 어느정도 도움을 주는지의 정도를 보고하도록 하였다. 사회적 지지의 정도에 대한 응답은 '아주 많은 도움을 준다'(5점)에서 '전혀 도움을 주지 않는다(1점)'까지 Likert식 5점척도로 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척도의 신뢰도계수(α)는 .92로 나타났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검사도구의 문항구성 및 타당도 분석을 위한 예비조사를 거친 후 1997년 3월 15일부터 2주일간 본조사가 이루어졌다. 본조사 자료수집을 위하여 인천광역시와 광주광역시에 위치한 6개의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만 2-5세아동을 자녀로 둔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배부, 회수하였다. 배부된 질문지는 200부였으며 회수된 질문지 가운데 자녀의 연령이 맞지 않거나, 잘못 표기하고 불성실하게 응답한 질문지를 제외한 후 최종적으로 145부를 분석자료로 사용하였다. 자료의 처리를 위해 SAS-PC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연구문제 검증용 위하여 t-test와 Pearson적률상관계수,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척도의 신뢰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Cronbach's α 값을 산출하였다.

IV. 결과 및 해석

1. 자녀의 연령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와 4-5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에서 집단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표1). 그 결과 양육스트레스 총점에 있어서는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양육스트레스의 하위영역 중 아동영역 양

〈표 1〉 자녀의 연령에 따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양육스트레스		자녀의 연령		2-3세 집단		4-5세 집단		t검증
		M	SD	M	SD	M	SD	
아동영역	기질	48.6	7.63	49.7	7.45	-0.73		
	요구성	20.7	7.58	12.1	7.26	6.02***		
	수용성	10.1	2.28	9.7	1.64	1.22		
	부모강화	14.3	1.27	13.8	1.87	1.13		
	총점	93.8	8.84	85.4	12.6	3.64***		
부모영역	일상적양육	28.2	6.47	29.0	6.21	-0.68		
	역할제한	20.9	4.97	20.7	4.54	0.20		
	유능성	10.9	4.71	13.3	2.46	-3.95***		
	총점	60.1	11.1	63.1	11.0	-1.43		
총점		153.9	17.4	148.6	19.6	1.53		

*p<.05 **p<.01 ***p<.001

육스트레스에서 유의한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 2-3세 집단 어머니가 4-5세 집단 어머니보다 아동영역 양육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아동영역의 하위차원인 요구성에서는 2-3세 자녀 어머니가 4-5세 자녀 어머니보다 양육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부모영역의 하위차원인 유능성의 경우 4-5세 자녀 어머니가 2-3세 자녀 어머니보다 양육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나서 자녀의 연령에 따른 집단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 자녀의 연령에 따른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자녀의 연령에 따라 어머니가 지각하는 사회적 지지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였다. 〈표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회적 지지 총점에서 자녀의 연령에 따라 차이를 보여 2-3세 자녀의 어머니가 4-5세 자녀의 어머니보다 사회적 지지를 더 지각하고 있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구조적 측면의 경우 남편과 시댁식구 지지에서 자녀의 연령에 따라 유의한 집단간 차이가 나타났다. 즉 2-3세 자녀의 어머니가 4-5세 자녀의 어

머니보다 남편이나 시댁식구로부터의 지지를 더 많이 받는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기능적 측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2-3세 자녀의 어머니가 4-5세 자녀의 어머니보다 정서적 지지, 자녀돌보기, 가사노동, 경제적, 정보적 지지를 더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녀의 연령에 따른 집단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3.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자녀의 연령 및 사회적 지지의 영향

자녀의 연령과 어머니가 지각한 사회적 지지가 양육스트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양육스트레스를 종속변인으로 하고 자녀의 연령 및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 측면과 기능적 측면 각각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3〉.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회귀분석의 기초가 되는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친정부모와 친정식구간에 높은 상관이 나타나 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의심되어 친정부모 변인을 제거한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한편 회귀가정의 위반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Dubin- Wat-

〈표 2〉 자녀의 연령에 따른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

사회적지지		자녀의 연령		2-3세 집단		4-5세 집단		t검증
		M	SD	M	SD	M	SD	
구조적 측면	남 편	20.3	4.02	16.3	6.08			3.69***
	시 부모	8.6	4.19	8.5	4.68			0.11
	친정부모	10.9	5.35	11.1	5.41			-0.16
	시대식구	19.9	6.33	7.9	4.33			10.4***
	친정식구	10.7	5.33	10.5	4.68			0.19
기능적 측면	정서적지지	15.6	4.97	12.6	5.15			2.95**
	자녀돌보기	13.7	3.92	11.0	3.96			3.46***
	가사노동	13.5	3.37	9.6	3.69			5.51***
	경제/물질적지지	12.8	3.60	9.4	3.81			4.72***
	정보적지지	15.0	3.66	11.7	3.83			4.37***
총 점		70.6	17.0	54.5	17.0			4.88***

p<.05 **p<.01 ***p<.001

son계수를 산출한 결과(1.58-2.03) 잔차와의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전체 양육스트레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남편지지($\beta = -.33$)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자녀연령($\beta = -.22$)의 영향을 받고 있었다. 즉 남편의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자녀연령이 많을수록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13%였다. 양육스트레스의 하위영역인 아동영역 양육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자녀연령($\beta = -.48$), 가사노동 지지($\beta = -.47$), 친정식구($\beta = -.25$)의 순으로 나타났고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17%였다. 부모영역 양육스트레스의 경우 남편의 지지($\beta = -.36$), 시대식구($\beta = -.30$), 자녀연령($\beta = .23$)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이들 변인의 설명력은 14%였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2-3세, 4-5세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두 연령집단에 따른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의 차이를 살펴보고, 양육스트레스에 미치는 사회적 지지와 자녀연령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언어

〈표 3〉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종속변수	독립변수	B	β
아동영역 F=10.8*** R ² _{adj} =.17	자녀연령	-13.96	-.48***
	가사노동	- 1.46	-.47**
	친정식구	- .65	-.25**
부모영역 F=8.15*** R ² _{adj} =.14	남 편	-.68	-.36***
	시대식구	-.47	-.30**
	자녀연령	5.96	.23*
전체 양육스트레스 F=9.58*** R ² _{adj} =.13	남 편	-1.10	-.33***
	자녀연령	-9.82	-.22**

*p<.05 **p<.01 ***p<.001

진 주요결과를 요약하고 논의점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아동영역 양육스트레스에서 2-3세 집단 어머니가 4-5세 집단 어머니보다 아동영역 양육스트레스를 더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아동영역의 하위차원인 요구성과 부모영역의 하위차원인 유

능성에서 유의한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 2-3세 자녀의 어머니는 자녀의 요구성과 관련된 양육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반면, 4-5세 자녀의 어머니는 아동영역의 수용성, 부모영역의 유능성과 관련된 양육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3세 아동의 경우 자아개념과 자율성이 형성되기 시작하나, 자신의 행동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고 스스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보호와 돌봄에 대한 요구가 그 어느때 보다도 큰 반면에 반항적 행동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로 인한 양육스트레스를 많이 지각하게 되는 것으로 풀이해 볼 수 있다. 반면, 4-5세 자녀의 경우 사회적 관계가 점점 확장되고 자기 주장과 의견을 내세우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자녀의 성장에 따른 양육자로서의 새로운 역할을 수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어머니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꼈을 때 스트레스를 더 지각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둘째, 자녀의 연령에 따른 어머니의 사회적 지지는 사회적 지지의 총점에 있어 2-3세 자녀의 어머니가 4-5세 자녀의 어머니보다 더 많이 받는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구조적 측면의 경우 남편과 시댁식구 지지에서 자녀의 연령에 따라 유의한 집단간 차이가 나타나 2-3세 자녀의 어머니가 4-5세 자녀의 어머니보다 남편이나 시댁식구로부터의 지지를 더 많이 받는다고 지각하고 있었다. 이는 유아기 자녀의 어머니가 주로 친정부모나 남편, 시부모 등 가까운 혈연관계 위주로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다는 연구결과(성영혜, 1993; 이숙현, 1990; 이은혜, 1997)에서 더 나아가 자녀의 연령에 따라서도 어머니가 지각하는 구조적 측면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기능적 지지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2-3세 자녀의 어머니가 4-5세 자녀의 어머니보다 정서적 지지, 자녀돌보기, 가사노동, 경제적, 정보적 지지를 더 많이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어머니의 손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는 유아기 중에서도 초기인 2-3세 까지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으로 볼 수도 있지만, 조기교육 풍조로 인하여 4-5세의 자녀를 둔 어머니의 경우 자녀를 유아교육기관에 보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셋째, 양육스트레스에 대한 자녀의 연령, 사회적 지지의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남편의 지지가 전체 양육스트레스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었고, 자녀의 연령이 많을수록 양육스트레스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스트레스의 하위영역인 아동영역 양육스트레스의 경우 자녀의 연령이 많을수록, 가사노동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친정식구의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아동영역 양육스트레스가 감소하였고, 부모영역 양육스트레스의 경우 남편의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시댁식구 지지를 많이 받을수록, 자녀의 연령이 낮을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적 지지 중 남편의 지지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감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난 것은 배우자(남편)의 지지와 배우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지지의 영향력이 다르다고 한 연구결과(전춘애 등, 1996; Cmic 등, 1983)와 일치하는 것으로 남편의 지지가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 감소의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고 자녀양육에 있어 아버지의 역할의 중요성을 시사해주는 한편 자녀양육에 있어서도 남편과의 부부관계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또 자녀의 연령이 많을수록 전체 양육스트레스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유아가 어릴수록에서 일상적으로 끊임없이 반복해야 되는 양육과 관련된 일이 많아지고 더 많은 시간을 양육에 보내야 하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한편 사회적 지지 중 가사노동 지지가 아동영역 양육스트레스 감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가 빨래, 청소, 설거지 등의 도움을 받았을 때 여가시간이나 다른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늘게 되고 신체적, 정신적 피로가 감소하게 되어 결국 아동특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아동영역 양육스트레스가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유아기 자녀를 둔 어머니는 자녀의 발달단계(2-3세, 4-5세)에 따라 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를 다르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

아기 자녀의 발달단계를 이해하고 그에 따라 적절한 양육행동을 습득할 수 있도록 바람직한 양육행동의 모델을 제시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하고, 자녀양육의 각 단계에서 적절한 사회적 지지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겠다.

둘째, 사회적 지지가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중요요인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는 가족 전체의 맥락에서 살펴져야 하므로 가족구성원이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한 방안으로 가사노동 분담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협력해야 하겠고, 핵가족화의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남편으로부터의 지지는 그 비중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가정생활에서의 남편 역할을 교육시키고 훈련시키는 내용이 가족생활교육프로그램 등의 내용에 반영되어 실시되어야 하겠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 측면을 가족 및 친척으로 제한하여 살펴보았으나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어린이집이나 유아교육기관 등과 같은 시설에서의 지지를 포함시켜 실시되어야 하리라고 보고,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나 사회적 지지가 자녀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겠다.

【참 고 문 헌】

- 가족스트레스연구회(1994). *엄마의 스트레스*. 창지사.
- 고성혜(1994). 어머니가 지각한 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18, 21-37.
- 김은숙(1989). 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에 대한 일 연구-자폐아 어머니와 정상아 어머니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희순(1988). 정서·정보적 지지모임이 만성질환아 어머니의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해미(1994). 자녀양육행동과 관련된 부모의 스트레스 분석.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ronfenbrenner, U.(1994). 인간생태학:개념과 관점, 연세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창립 30주년 기념 국제학술심포지움 자료, 인간생태학적측면에 서의 가정학, 30-46.
- 성영혜(1992). 부모의 사회적 지지체계와 아동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송주미(1992). 양육스트레스 상황에서 사회적 지지가 부모의 자녀행동지각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숙현(1990). 부모기로의 전환에 따른 부부관계의 변화. *가족학논집* 2, 1-27.
- 이은혜(1997). 어머니의 사회적 관계망, 자녀양육에 대한 난이도 지각과 아동의 발달. *대한가정학회지* 35(3), 31-45.
- 이인숙(1994). 도시전업주부의 자녀양육스트레스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재연·최영희(1990). *아동발달*. 서울:문음사
- 전춘애·박성연(1996). 자녀양육스트레스와 사회적 지지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4(5), 115-129.
- 최진아(1996).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적응능력. 전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한세영(1996). 아동과 어머니의 기질적 부조화에 따른 어머니의 일상적 양육스트레스.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Abidin, R. R.(1990). *Parenting Stress Index(PSI)* : Manual Pediatricpsyc.
- Belsky, J, Lang, M. E. & Rovine, M(1985). Stability and change in marriage across the transition to parenthood:A second study,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7, 855-865.
- Bradshard, W. J. & Lawton, D.(1978). Tracing the causes of stress in families handicapped children. *British Journal of social works* 8, 181-192.
- Bronfenbrenner, U.(1977). Toward an experimental ecology of human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32, 513-531.
- Cobb, S.(1976).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 300-314.

- Cochran, M. M.(1977). A comparison of group day and family child-rearing patterns in Sweden. *Child Development* 48, 702-707.
- Cochran, M. M.(1993). Parenting and Personal social networks. In Luster, T. & Okagaki, L.(Eds) *Parenting-an ecological perspective*, Luwrence Erlbaum.
- Collins, N. L., Dunkel-Schetter, C., Lobel, M. & Scrimshaw, S. C.(1993). Social support in pregnancy: Psychosocial correlates of birth outcomes and postpartum dep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 1243-1258.
- Crnic, K. A. & Booth, C. L.(1991), Mothers' and fathers' perceptions of daily hassles of childhood. *Journal of Marriage & the Family* 51, 1042-1050.
- Crnic, K. A. & Greenberg, M. T.(1990). Minor parenting stresses with young Children *Child Development* 61, 1628-1637,
- Crnic, K. A., Greenberg, M. T., Ragozin, A. S., Robinson, M. M. & Basham, R. B. (1983). Effects of stress and social support on mothers and premature and full-term infants. *Child Development* 54, 209-217.
- House, J. S. & Kahn, R. L.(1985). Measures and concepts of social support. In S.Cohen & S.L. Syme(Eds.). *Social support and health*. New York: Academic Press
- Melson, G. F., Lad, G. W. & Hsu, H.(1993). Maternal support networks, maternal Cognitions, and young children's social and cognitive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64, 1401-1417.
- Sarason, I. G., Johnson, J. H. & Siegel, T. M.(1978). Assessing the impact of life changes : Development of the life experiences surve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46, 932-946.
- Schilling, R. F., Gilchrist, L. D. & Schinke, S. P. (1984). Coping and social support in families of developmentally disabled children. *Family Relation* 33, 47-54.
- Shapiro, J.(1989). Stress, depression, and support group participation in mothers of developmentally delayed children, *Family Relations* 38, 121-126.
- Tietjen, A(1985). Relationships between the social networks of Swedish mothers and their child,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18, 195-216.
- Turner, R. J., Frankel, B. G. & Levin, D. M.(1983). Social support: Conceptualization, measurement, and implications for mental health in J.R. Greeley (ed.), *Research in community and mental health*, Greenwich: JAI Press Inc., 36-116.
- Unger, D. G. & Wandersman, L. P.(1985). Social Support and Adolescent Mothers : Action Research Contributions to Theory and Application *Journal of Social Issues* 41, 29-45.
- Webster-Stratton, C.(1988) "Mothers' and fathers' perceptions of child deviance: roles of parent and child behaviors and parent adjustmen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909-915.
- Weinraub, M. & Wolf, B.(1983). Effects of stress and social supports on other-child interactions in single- and two-parent families, *Child Development* 54, 1297-1311.